Mobilty at a glance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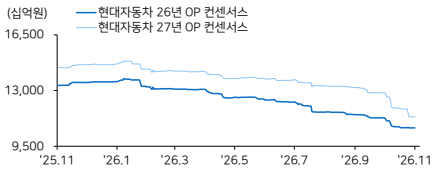
2026.11.6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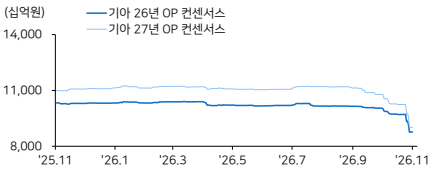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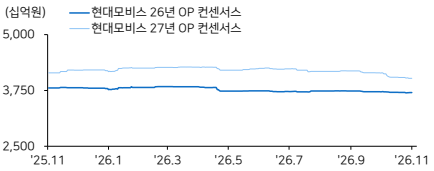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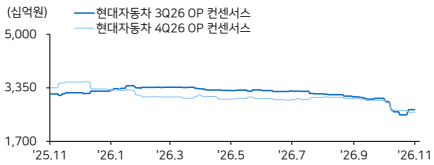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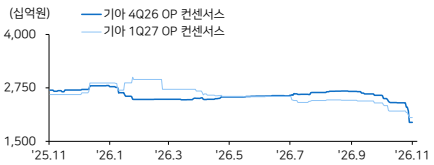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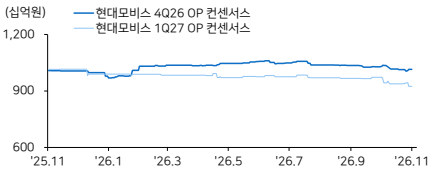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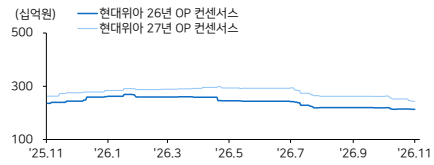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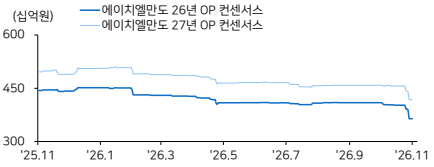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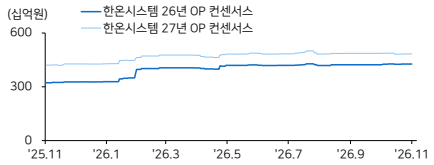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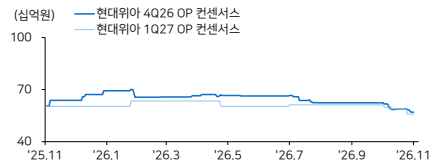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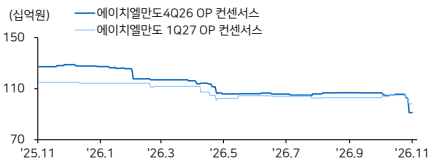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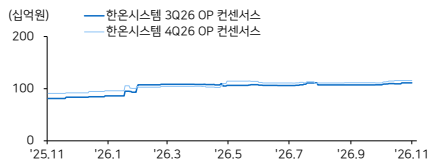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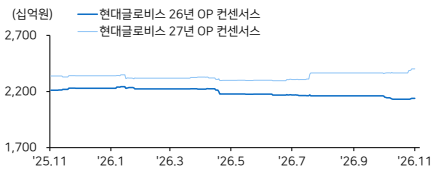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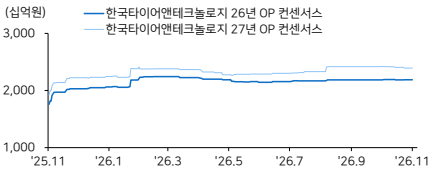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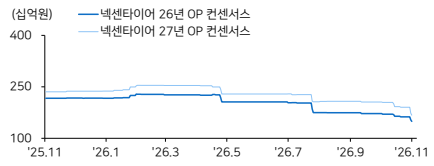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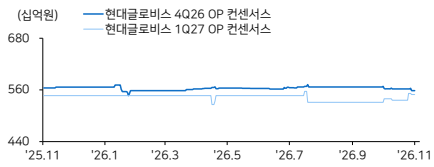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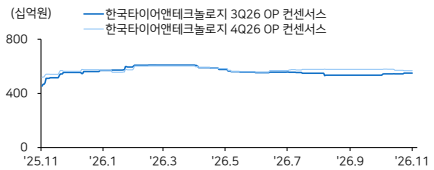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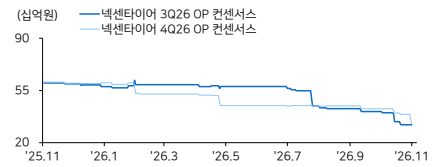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엔비디아 'GPU 5만' 계획 구체화…자율주행 승부수 (디지털타임스)

현대차그룹은 Nvidia 호퍼 기반 GPU를 활용해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이를 블랙웰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중. 지난해 발표한 GPU 5만개 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연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https://han.gl/V8jkN

현대오토에버, 'HMG AI 팩토리' 설립 완료…인프라 전문가 권혁민 대표 선임 (ZDNet)

현대오토에버는 정정공시를 통해 가칭이었던 'HMG AI 팩토리'의 사명을 확정하고 대표이사와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등을 공개. HMG AI 팩토리의 초대 대표이사에는 기존 현대오토에버 클라우드사업부 산하 서버기술실장 출신 권혁민 대표를 선임

https://han.gl/wtoeN

현대차그룹, GM·도요타·샤오미 등과 미래 모빌리티 협력 논의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은 세계자동차공학회연합(FISITA)과 함께 'FISITA 월드 모빌리티 서밋 2026'을 주최. 올해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GM, Toyota, Bosch, Xiaomi, Changan 등이 참석하여 AI·전동화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

https://han.gl/Qc92p

보스턴다이내믹스, 美 매사추세츠주 2000만 달러 세액공제 확보…단일 기업 '1위' (더구루)

Boston Dynamics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로부터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을 확보. 회사는 주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1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글로벌 피지컬 AI 로봇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

https://han.gl/F3jfo

美 '블루웨이브'에도 후관세 유지 관측…"원산지 규정·대미투자 감시가 변수" (뉴시스)

KOTRA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부품 등에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행정부 권한에 근거한 만큼 현행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민주당이 관세 권한 제한 입법에 나서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

https://han.gl/T1r31

우버 빌려 타면 웨이모, 직접 손님 받는다…2028년 독자 앱 전환 (디지털투데이)

Waymo가 2028년 1월부터 미국 오스틴과 애틀랜타에서 Uber 독점 체제를 끝내고 자체 스마트폰 앱으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2028년 이후 두 지역에서는 Uber와 Waymo 앱이 병행 운영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짐

https://han.gl/6WQZf

중견후 3사, 테슬라·BYD 공세에 '휘청' (한국경제)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GM 등 국내 중견 완성차 3사의 올해 1~10월 내수 판매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주력 차종 대부분이 Tesla와 BYD 등과 겹쳐 수입 전기차 공세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

https://han.gl/NHR8H

전기차 수출 경쟁력, 중국에 추월당했다 (조선일보)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차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2023년 2.92 → 2025년 1.48로 지수가 급락. 반면 중국의 RCA는 2019년 0.19 → 2025년 1.49로 약 8배 폭등하며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

https://han.gl/MHOHf

Geely chairman predicts China's car market will shrink again in 2027 (Automotive News)

Geely 그룹의 안충후이 회장은 올해 예상되는 기록적인 판매 침전이 빠르게 끝날 조짐이 없음을 시사하며, 2027년 중국의 내수 자동차 시장이 다시 축소될 것으로 전망. CPCA에 따르면 올해 첫 3분기 동안 중국 내수 신차 판매량은 YoY -22% 감소

https://han.gl/TVLHv

"50년 '계열' 족쇄 푼다"… 토요타, 中 현지 부품 전면 수용해 '점유율 반등' 선언 (글로벌이코노믹)

Toyota가 일본 특유의 폐쇄적 부품 공급망 체계인 '계열(케이레츠)' 구조에서 전격 탈피를 선언. 중국 시장 내 판매량이 급감하자, "국적과 그룹 소속을 불문하고" 중국 로컬 부품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 탈환에 나서겠다는 전략

https://han.gl/MygZm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